

# 문화콘텐츠 원천으로서 <화전가>의 가능성\*

백순철\*\*

## <차 례>

1. 머리말
2. 고전시가의 문화콘텐츠화 양상
3. 화전놀이의 콘텐츠화 양상
4. 화전가의 콘텐츠적 가능성
  - 4.1 교육연구 콘텐츠로서의 화전가
  - 4.2 대중매체 콘텐츠로서의 화전가
  - 4.3 산업정보 콘텐츠로서의 화전가
5. 맺음말

## <국문초록>

이 연구는 화전가의 문화콘텐츠적 가능성을 전망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고전시가의 주요 작품들이 문화콘텐츠로 활용된 사례를 통해 현재 시점의 대표적 성과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본고의 대상인 화전가의 중심인 화전놀이가 현대적으로 계승 활용된 사례를 살펴보고, 화전가 텍스트를 통해 그 놀이의 역사성을 현재에 되살리는 데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의 문제를 거론하였다. 또한 화전가를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확장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하였다.

고전시가의 문화콘텐츠화 양상에서는 시조, 가사, 민요, 무가 등의 자료 집성 및 주석과 현대화 등 기초적인 성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고전시가가 현대시, 현대소설, 대중가요 등의 현대적 텍스트로 변용된 사례에서 향가와 속요

---

\* 이 논문은 2013년도 대구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대구대학교

갈래의 현대적 계승이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밖에 고전시가가 관광 콘텐츠로 활용된 긍정적 사례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고전시가가 문화콘텐츠 원천으로서 적절성과 확장성을 지닌 텍스트임을 제시하였다.

화전놀이의 문화콘텐츠화 양상에서는 유희적 소통으로 이뤄지는 현재의 화전놀이 수용 사례를 성찰하고 화전놀이 문화 본래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복원하기 위해 화전가와 결합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해방과 연대의 치유적 소통이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화전가의 콘텐츠적 가능성에서는 교육연구 콘텐츠 구축, 대중매체 콘텐츠로의 변용, 관광이나 전시 등의 산업정보 콘텐츠로의 확장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고의 논의는 고전의 현대적 계승과 대중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깊이 있는 교육연구 텍스트의 구축 못지 않게 대중적 확산과 소통의 노력을 위한 콘텐츠의 활용도 중요함을 제시한 것이다.

**핵심어** : 문화콘텐츠, 화전놀이, 화전가, 유희적 소통, 치유적 소통

## 1. 머리말

이 글은 ‘시조가사의 현대적 계승과 진흥 및 문화콘텐츠 방안’이라는 큰 주제 아래 가사문학의 한 유형인 화전가의 문화콘텐츠 원천으로서의 가치와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이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는 먼저 ‘왜 화전가인가’ 하는 점과 ‘화전가의 문화콘텐츠화는 가능한가’ 하는 점에 대한 물음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물음과 관련해서는 전통놀이 문화로서의 ‘화전놀이’와 여성 공동체의 문화적 산물로서의 <화전가>가 현재 문화콘텐츠로서 활용되는 사

례를 비교해보는 데서 그 정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즉 전자인 ‘화전놀이’의 경우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문화 축제에서 그 놀이문화가 재현되고 있는데 대체로 놀이의 오락적·유희적 측면만이 강조되는 있는 듯하다. 이는 화전가 텍스트에 담긴 화전놀이의 축제적 성격과 여성문화적 의미 맥락<sup>1)</sup>이 놀이와 충분히 결부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그런데 <화전가>를 보면 그 최초의 기명 작품인 <반도화전가(反嘲花煎歌)> 만 보더라도 공동체간의 의사소통적 기능과 함께 여성해방적 의미가 담겨 있으며, 또한 <텐동어미화전가>에는 여성들간의 자기 서사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연대를 통한 치유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화전가>의 문화콘텐츠적 활용은 대체로 출판물을 통해 텍스트의 의미망을 포획하여 문맥적 의미를 풍성하게 해석하거나,<sup>2)</sup> 현대소설화하여 그 캐릭터의 성격을 극대화하는 방식<sup>3)</sup>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문화콘텐츠로서 화전가의 올바른 활용은 화전놀이의 축제적 재현과 함께 그 문화적 의미를 풍성하게 하는 데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물음과 관련해서는 소극적인 차원의 서적출판물 형태를 벗어나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문화콘텐츠로 전화(轉化)를 도모할 경우 화전가의 가능성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탐색에서 출발한다. 텍스트 내적 문맥의 의미를 정리하고 해석하여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를 한국 문화산업과 어떻게 연계시켜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

1) 한양명, 「화전놀이의 축제성과 문화적 의미」, 『한국민속학』33, 한국민속학회, 2001.

장정수, 「화전놀이의 축제적 성격과 여성들의 유대의식」, 『우리어문연구』39, 우리어문학회, 2011.

유정선, 「화전가에 나타난 여성의 놀이 공간과 놀이적 성격-‘음식’과 ‘술’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18,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2) 임주탁, 「텐동어미, 불행하지만 누구보다 삶을 사랑한 억척 여인」, 서대석 편 『우리 고전 캐릭터의 모든 것』3, 휴머니스트, 2008.

박혜숙, 「운명과 달관의 서사가사-텐동어미화전가-」,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3, 휴머니스트, 2006.

박혜숙, 『텐동어미화전가』, 돌베개, 2011.

3) 박정애, 『텐동어미전』, 한겨레출판, 2012.

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물음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고전시가의 주요 작품들이 문화콘텐츠로 활용된 사례를 통해 현재 시점의 대표적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고의 대상인 화전가의 중심인 화전놀이가 현대적으로 계승 활용된 사례를 살펴보고, 화전가 텍스트를 통해 그 놀이의 역사성을 현재에 되살리는 데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의 문제를 거론하고자 한다. 또한 화전가를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확장 전환하는 방향을 더불어 논의하고자 한다.

## 2. 고전시가의 문화콘텐츠화 양상

문화콘텐츠 개발 소재나 스토리텔링 원천 자료로서 화전가의 가치를 따져보기에 앞서 살펴볼 것은 고전시가가 문화콘텐츠로서 어느 정도의 적절성과 확장성을 가지는가 하는 점이다. 먼저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콘텐츠화 작업은 고전의 현대적 계승을 위한 자료의 집성 및 주석과 현대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가의 경우 수행된 대표적 작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조 : 심재완의 『교본 역대시조전서』(세종문화사, 1972), 박을수의 『한국시조대사전』(아세아문화사, 1992), 김홍규 외 『고시조 대전』(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2)

가사 : 이상보의 『17세기 가사전집』(민속원, 1987)·『18세기 가사전집』(민속원, 1991), 임기중의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누리미디어, 2005), 권영철의 『규방가사 I』(정문연, 1979), 『규방가사-신변탄식류-』(효성여대출판부, 1985)

민요 : 『한국구비문학대계』(정문연 전82책, 1980~1988), 『한국민요대전 (CD 및 해설집)』(문화방송, 1993~1996)

무가 : 현용준의 『제주도무속자료사전』(신구문화사, 1980)

그 자체로 연구사에서 활용 비중도 높고 유의미한 콘텐츠화 작업이지만 경제적 가치나 산업적 효용의 창출과는 다소 거리가 있고 학술적·교육적 가치를 강화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다음으로는 고전시를 콘텐츠로 활용하여 현대시, 현대소설, 대중가요 등 현대적 텍스트로 변용하는 작업이다.

#### △ 현대시

향가 <헌화가> : 서정주의 <老人獻花歌> · <水路夫人의 얼굴> · <水路夫人은 얼마나 이뻐는가?>, 문효치의 <나의水路>, 박희진의 <헌화가>, 김규화의 <水路夫人>, 권천학의 <水路夫人>, 박제천의 <水路>, 신규호의 <당돌한 실수>, 정의홍의 <수로부인의 고백>, 홍해리의 <水路여水路여>, 박진환의 <獻花歌散調>, 임보의 <水路夫人의戀史>

향가 <서동요> : 윤석산의 <맛동의 노래> · <無名인 나에게> · <살 또는 삶> · <돌, 또는 금> · <맛동의 사랑> · <善花에게> · <善花公主의 말>, 박진환의 <薯童>, 홍해리의 <서동요>, 신규호의 <신서동요>, 정의홍의 <서동의 말>, 김규화의 <薯童이여>, 임영희의 <薯童 오라비여>, 박경석의 <내 열아홉薯童>, 권천학의 <薯童이랑善花랑>

향가 <도술가>와 <제망매가> : 서정주의 <月明스님>, 박제천의 <月明>

향가 <우적가> : 박제천의 <遇賊>, 박희진의 <우적가>, 이승하의 <遇賊歌를 읽으며>

향가 <원왕생가> : 박제천의 <願往生歌>

향가 <처용가> : 서정주의 <處容訓>, 박희진의 <처용가>, 박제천의 <처용>, 윤석산의 <처용의 노래> 연작시

속요 <청산별곡> : 윤곤강의 <살어리>

속요 <정과정> : 신석초의 <백조의 꿈-鄭瓜亭曲을 본따서>

속요 <동동> : 신석초의 <十二月戀歌>

속요 <정석가> : 이견청의 <有德호신님, 당신을 향해 부르는 풀들의 노래>

속요 <쌍화점> : 이희중의 <카페 쌍화점에서>

속요 <가시리> : 홍신선의 <贈答 無名氏 夫人>

속요 〈만전춘별사〉 : 이근배의 〈麝香 그리고 黃砂〉

△ 소설

향가 〈처용가〉를 동기로 창작한 김소진의 〈처용단장〉(삼성, 1995)  
고려가요 〈정읍사〉를 소설화한 문순태의 〈정읍사-그 천년의 기다림〉  
(이룸, 2001)

고려가요 〈청산별곡〉을 소설화한 김제철의 〈그리운 청산〉(민음사, 1988)

△ 대중가요

고대가요 〈공무도하가〉(이상은),  
고려가요 〈가시리〉(이명우), 〈청산별곡〉(노바소닉),  
가사 〈사미인곡〉(서문탁) 등4)

고전시가가 문학콘텐츠의 창작소재로 활용된 셈인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로서보다는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작품 모티프의 문화적 함의를 풍성하게 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산업적 가치 또는 경제적 효용을 획득하기 위해 고전시가 콘텐츠를 활용하는 단계이다. 이는 90년대 이후 문화콘텐츠의 개념에서 가장 중시되는 대목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정창권5)의 논의가 주목된다. 그는 “문화콘텐츠(culture contents)는 한국이 만든 신조어로, 문화적 요소를 함유한 대중매체 혹은 문화상품을 말한다. 문화콘텐츠는 특히 창의력과 기술력이 체화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품이다. 또한 콘텐츠는 그러한 각종 대중매체에 담긴 내용물, 곧 작품들을 말한다. 문화콘텐츠의 범위는 대단히 넓은데 출판과 만화,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공연, 음반, 전시, 축제, 여행, 테마파크, 디지털콘텐츠, 에듀테인먼트, 인터넷콘텐츠, 모바일 등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고전시가에서 가장 활용 사례가 많은 것이 전시, 축제,

4) 대중가요라는 점에서 시나 소설과 달리 경제적 효용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거론한 작품들은 거개가 상업성과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같은 선상에서 논의하였다.

5) 정창권, 『문화콘텐츠 교육학』, 북코리아, 2009, 25면.

여행, 테마파크 같은 일종의 관광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고려가요 <정읍사>가 그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전북 정읍시에서는 <정읍사>와 관련하여 1986년 망부상을 건립하고, 1994년 사우 건립과 제례 거행, 1996년 노래비 건립과 가무악극 창작 등을 통해 지역 축제로서 ‘정읍사 문화제’를 개최하게 된다. 노래를 기념하는 가시적 구조물을 건축하고 이를 스토리텔링화한 가무악극의 공연물을 창작하여 지역문화를 홍보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콘텐츠로 활용한 것이다.<sup>6)</sup> 이처럼 고전시를 관광콘텐츠로 활용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축제 : 익산서동축제(2005~2013), 정읍사문화제(1990~2013), 울산 처용문화제(1967~2013), 고양 송강정철문화제(2003~2013)  
전시 : 삼척 수로부인공원, 해남 고산유물관, 담양 가사문학관<sup>7)</sup>

고전시의 인물(작자), 작품, 내용 등을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표상하고 이를 부가가치 창출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고전시의 문화콘텐츠화를 도모함에 있어서 향후 경제적 효용을 염두에 둘 때 이들의 사례는 참고가 될 만하다. 이처럼 지역과 결부되어 전시 가능한 박물관, 구조물, 테마파크 등을 건립하거나 축제 콘텐츠로 고전시를 활용하는 사례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강릉 지역과 <헌화가>, 단양 지역과 <모죽지랑가> 등을 연계하여 얼마든지 관광문화콘텐츠의 창출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송강가사나 <상춘곡> 같은 가사문학의 유산은 이미 콘텐츠화가 검토에 들어간 단계이다.<sup>8)</sup>

6) 박진태, 「13장 <정읍사>의 확산과 지역 축제로의 회귀」, 『한국문학의 경계 넘어 서기』, 태학사, 2012.

7) 2000년에 완공된 전남 담양의 ‘한국가사문학관’은 가사문학 관련 최초의 박물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여기에는 가사문학 관련 서화 및 유물 11,461여 점, 담양권 가사 18편과 관계 문헌, 가사 관련 도서 15,000여 권을 소장하고 있다. (한국가사문학관(<http://damyang.go.kr>))

8) 최한선, 「송강가사의 문화콘텐츠화 방향」, 『고시가연구』33, 한국고시가학회, 2014.

박진태, 「14장 고전문학의 지역성과 <상춘곡>의 축제화」, 『한국문학의 경계 넘어

경제적 측면에서 고전시가를 콘텐츠화하는 방식으로는 또한 공연과 같은 연행물로 전환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공무도하가, 제망매가, 서경별곡을 스토리텔링화한 사례<sup>9)</sup>, 뮤지컬로 연행된 가사 〈사미인곡〉의 사례<sup>10)</sup>, 청주아리랑의 문화원형적 가치 및 문화콘텐츠 활용 사례로서 출판, 음반, 공연 등으로 생산된 실례<sup>11)</sup>, 전남 담양의 누정 소쇄원을 배경으로 한 한시 〈소쇄원〉 48명의 행위 요소를 중심으로 사대부의 일상을 재연한 사례<sup>12)</sup> 등이 있다.

이상의 사례만으로도 고전시가의 문화콘텐츠로서의 적절성과 확장성은 어느 정도 증명이 된 셈이다. 다만 좀 더 지속 가능하면서도 풍부한 문화적 함의를 획득한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작자나 작품에 관련된 것에서 벗어나 특정 문화권 전체와 관련된 시가문학의 콘텐츠화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는 이상원의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상주문화권<sup>13)</sup>의 경우 시조작가가 18명에 109수, 가사작가가 13명에 160여 편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 성취를 자랑한다. 이 시가 유산과 관련해서는 담양과 같이 시가문학의 유산을 한 자리에 모아 전시하는 문학관이나 박물관의 건립, 주요 시가문학의 문화 유적을 복원하여 이를 연결하는 시가문학 답사길의 연결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어서기』, 태학사, 2012.

9) 강명혜, 「고전시가와 스토리텔링」, 『온지논총』16, 온지학회, 2007.

10) 정인숙, 「〈사미인곡〉의 공연예술적 변용과 그 의미 ; 고전시가의 현대적 변용과 관련하여」, 『국어교육』120, 한국어교육학회, 2006.

11) 안상경, 「청주아리랑의 역사성과 문화콘텐츠 활용 연구」, 『인문콘텐츠』11, 인문콘텐츠학회, 2008.

12) 임준성, 「〈소쇄원 48명〉 재연 요소 분석과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고시가연구』31, 한국고시가학회, 2013.

13) 이상원에 의하면 상주문화권은 문경, 함창, 상주, 선산, 개령, 금산, 지례, 성주, 인동, 칠곡 지역을 가리킨다. (이상원, 「상주문화권 시가문학 연구」, 『어문론총』57, 한국문학언어학회, 2012).

### 3. 화전놀이의 콘텐츠화 양상

한양명은 여성들에게 집은 구속의 문화적 기호이며, 여성들의 관광문화는 집을 벗어난다는 점에서 일상을 벗어나 해방을 만끽하는 비밀상적 체험의 영역으로 기능한다고 설명한다.<sup>14)</sup> 그는 화전놀이는 바로 이러한 여성들의 해방을 꿈꾸는 비밀상적 체험의 원형적 놀이문화임을 일찍이 간파한 것이다. 장정수 역시 화전놀이에 나타난 이러한 여성해방의 유도피아적 체험을 디오니소스적 오르지와 엑스터시, 그리고 억압에 대한 전도(顛倒)로 더욱 구체화하여 설명해내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파괴와 해체가 아니라 통합과 재생을 통해 여성공동체간의 유대감을 형성한다고 설명한다.<sup>15)</sup> 화전놀이를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과 태도는 이 놀이가 단순한 유희적 소통의 기능을 넘어서서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해방과 연대라는 생애의 중요한 경험을 안겨주는 체험임을 말해준다.

이제 가문과 향촌을 중심으로 행해지던 전통문화로서의 화전놀이는 지역 축제 또는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재현되고 있다. 각 지역에서 재현되는 행사를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 : 삼삼한 봄놀이 삼진날(남산한옥마을 개최) ; 시회(詩會)재현, 화전 만들기 체험, 전통놀이 체험<sup>16)</sup>

세종 : 전통면 생활문화개선회 주최 ‘제2회 진달래 화전놀이’(2013) ; 진달래화전체험, 꽃차 시음<sup>17)</sup>

전주 : 전주한옥마을 화전놀이(한국차문화협회 전북지부와 천년전주사랑모임 주최) ; 화전대회, 들차회, 백일장, 화전체험, 다례체험<sup>18)</sup>

14) 한양명, 「화전놀이의 축제성과 문화적 의미-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33, 한국민속학회, 2001.

15) 장정수, 「화전놀이의 축제적 성격과 여성들의 유대의식」, 『우리어문연구』39, 우리어문학회, 2011.

16) 「헤럴드경제」 2014.03.21.

17) 「뉴스충청인」 2014.04.17.

18) 「전북일보」 2014.05.06.

전북 : 모악산 진달래 화전축제(2001~2013) ; 그리기, 글짓기, ucc, 사진 촬영대회, 모바일삼행시, 옛기와 그림전시, 화전전시, 대나무숫대전시 등<sup>19)</sup>  
 장흥 : ‘장흥 산벚꽃 화전놀이’(2009) ; 화전놀이<sup>20)</sup>  
 여수 : 여수 손죽도 화전놀이(2011) ; 화전만들기. 민요부르기.<sup>21)</sup>  
 울산 : 울주문화원 화전놀이 및 재애밧기 놀이(2002~2013) ; 화전부치기 경연, 사행시 경연, 민속놀이<sup>22)</sup>

지역 축제나 문화행사에서 화전놀이를 주요 프로그램으로 채택한 위의 행사들을 보면 대체로 화전만들기, 화전 시식, 화전 전시 같은 화전놀이를 중심에 두면서 전통놀이나 음식 체험, 각종 경연을 함께 배치하고 있다. 화전놀이의 문화적 전통을 전시하거나 재연하는 프로그램보다는 주로 음식 체험이나 경연 같은 유희적 소통이 중심이 되고 있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고유의 성격을 찾기가 어렵다. 행사의 분포 지역을 보면 서울과 충청, 전남북 등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 화전가에 나타난 화전놀이의 절차 등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화전 체험을 재현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이는 이 지역들의 화전놀이 재현이 화전가 텍스트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물론 전통적인 화전놀이 전승이 온전하게 계승되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비교적 놀이의 절차나 문화적 성격을 기록하고 있는 화전가가 이러한 화전놀이 재현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것도 한 이유가 될 것이다. 오랜 전통을 가지는 화전놀이는 원래는 여성들만의 독자적 문화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씨 집에 재매부인이 죽으매 청연 상곡(上谷)에 장사지내고 인하여 財買谷(재매곡)이라 이름하여, 해마다 봄이면 원 집안 士女(사녀)가 그 골 남쪽 시내에 모여 잔치하였다. 이때엔 온갖 꽃이 피고 松花(송화)가 계곡 속에 가득하였다.<sup>23)</sup>

19) 「전북도민일보」 2013.04.18.

20) 「연합뉴스」 2009.04.22.

21) 「남도방송」 2011.05.04.

22) 「뉴스스」 2012.03.20.

재매곡 : 김유신의 딸 딸 재매부인을 청연의 위에 있는 골짜기에 묻었으므로 이 이름을 붙였다. 매년 봄에 같은 집안의 사녀들이 그 골짜기의 남쪽 물가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 시기에는 수많은 꽃들이 만발하고 송화가 골짜기에 가득하였다. 골짜기의 입구에 초막을 하나 엮었는데 그런 까닭으로 송화방이라고 하였다.<sup>24)</sup>

위 두 기록을 보면 신라 때 김유신의 딸 딸 재매부인의 장사 후 매년 봄이 되면 가문내의 士女들이 그 장사 지낸 산천에 모여 會宴을 가지는데, 이 때가 여러 꽃과 함께 송화가 만발하는 시기여서 일종의 화전놀이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집안내의 남녀가 모두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화전놀이의 전통은 조선전기의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장령(掌令) 김명중(金命忠)이 본부(本府; 司憲府)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남녀(男女) 7, 8인이 술에 취하여 거문고를 타고 노래를 부르며 서로 더붙어 희롱하고 춤추면서 대궐 문을 지나가며, 대도(大都) 가운데서 조금도 두려워하고 꺼리는 것이 없으므로, 신(臣) 등이 사헌부(司憲府)에 있다가 이것을 듣고서 잡아왔으니, 청컨대 이들을 국문(鞫問)하소서.”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대저 미친한 백성은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으면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어찌 감히 백성들로 하여금 곤고(困苦)하고서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하겠는가? 내가 전일에 미친한 백성이 모여서 술마시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교지(敎旨)로 내렸는데, 그대들이 어찌 함부로 잡아와서 아뢰는가?” 하였다. 김명중(金命忠)이 아뢰기를, “성상께 아뢰지 않고서 잡아온 것은 신(臣)이 실로 죄가 있습니다.” 하고는, 또 아뢰기를, “금년은 한재(旱災)가 있어서 보리와 밀이 이삭이 패지 못하여 연사(年事)가 매우 흉년이 들고, 물건 값이 뛰어 오르니, 신(臣)은 술을 금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기를, “장령(掌令) 김명중(金命忠)이 교지(敎旨)를 거스르고 위복(威福)을 함부로 부려, 책문(責問)할 때에도 항거

23) 金氏宗財買夫人死, 葬於靑淵上谷, 因名財買谷. 每年春月, 一宗士女會宴於其谷之南澗, 于時百卉敷榮, 松花滿洞府林(『三國遺事』 권1, 「紀異」 ‘金庾信條’).

24) 財買谷 : 金庾信 宗女 財買夫人 葬於靑淵上谷 因名之 每春月 同宗士女 會宴於其谷之南澗 于時 百卉敷榮 松花滿洞府 谷口 架築爲菴 因名 松花房. (『嶠南志』 권4, 慶州 古跡條).

하여 쟁론(爭論)하면서 공경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으니, 그것은 추국(推鞠)하여 아뢰라.”하였다. 이때에 금령(禁令)이 자못 간략하므로 무당의 풍속이 성행(盛行)하였으니, 도성(都城) 사람의 남녀(男女)들이 떼지어 술을 마시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 매양 한번 술자리를 베풀면 반드시 음악을 베풀게 되고 해가 저물어서야 헤어져 돌아갔다. 남녀(男女)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떠들면서 태평 시대의 즐거운 일이라고 불렀다. 귀가(貴家)의 부인들도 또한 많이 본받아서 장막을 크게 설치하고는 아들과 며느리를 다 모아서 호세(豪勢)와 사치를 다투어 준비하는 것이 매우 극진하였다. 두견화(杜鵑花)가 필 때에 더욱 많게 되니, 이름 하기를 ‘전화음(煎花飲)’이라 하였다.<sup>25)</sup>

남녀 여럿이 음주가무로 어울리는 장면을 목격하고서 이들을 별주기 위해 잡아온 관리를 오히려 나무라고, 이러한 모습이 오히려 태평성대의 근거임을 통치자가 확인해준다. 장안의 남녀뿐만 아니라 귀가의 부인들도 아들 며느리를 모아 본격적인 회연을 가지니 이를 ‘전화음’이라 한다고 되어 있다. 남녀가 어울려 음주가무하는 것을 각별히 금기시하지 않는 것도 놀랍지만 이를 태평성대의 증거로 이해하는 것에서 화전놀이의 성격이 드러난다. 이로 볼 때 화전놀이가 여성들만의 독자적인 놀이로 변화된 것은 조선후기에 이르러서이며<sup>26)</sup> 오히려 근대 초기에 더욱 왕성하게 전개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화전가와 화전놀이의 만남 역시 조선후기의 산물인 것이다.

권영철의 『규방가사 I』(정신문화연구원, 1979)의 ‘5. 풍류소영류’를 보

25) “위복을 함부로 부리고 책문할 때에도 항거한 장령 김명중을 추국하게 하다”(『조선왕조실록』 권7, 세조조 3년(1457 정축) 4월 22일(乙卯條) 3번째 기사).

26)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화전가가 여성들의 놀이문화로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화전가의 전통이 오래되었음을 언급한다기보다는 조선후기 화전가가 갖는 여성놀이문화의 전통의 원형적 모습을 신라시대 한가위 여성들의 가무백회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일년일차 여자노름 예로부터 역사깊다 / 옛날에 신라때에 육부에 여자들은 / 삼베길삼 마친후에 팔월보름 맑은가을 / 주식으로 가무백회 한가위 노래이다 / 세월가고 풍속변해 여자노름 극란하다 / 일년일차 화전노름 여자노름 이뿐일세” (3번 화전가, 권영철, 『규방가사 I』, 정신문화연구원, 1979, 278면).

면 대체로 화전가류에 속하는 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전체 30편의 작품중 25편의 작품이 영남 지역에서 채록된 화전가에 해당하여<sup>27)</sup> 화전가와 화전놀이는 뿔레야 뿔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말해준다.

제목	창작시기	지역	작자
2) 화전가라	경자(1900, 1960)	경북 영양	미상
3) 화전가	무자(1948)	경북 봉화	신승덕
4) 화전가	갑자(1924)	경북 상주	미상
5) 화전가라	기축(1949)	경북 문경	미상
6) 병암정 화전가	기축(1949)	경북 예천	권대오
7) 친목유희가	병오(1966)	경북 군위	미상
8) 휘춘곡	정해(1947)	경북 봉화	미상
9) 화전가	을미(1955)	경북 월성	손종록씨 부인
10) 화전가	?	경북 의성	미상
11) 화전가라	?	경북 안동	권종태씨 부인
12) 화전가라	계유(1933)	경북 안동	미상
13) 천등산 화전가	기사(1929)	경북 안동	권기섭
14) 화전조롱가	?	경북 문경	미상
15) 신태년 화수가	신해(1911, 1971)	경북 안동	이씨부인(해저춘양댁)
16) 화전가	을축(1925)	경북 선산	미상
17) 화춘가라	?	대구시	미상
18) 화전가	?	경북 안동	미상

27) 1번 권본 화전가는 채록본이 아니라 교주본이라는 점에서, 26번 화유가, 27번 승리가, 29번 선유가, 30번 춘풍가는 탐승과 풍류의 성격을 갖고는 있지만 화전놀이에서 연행된 화전가의 성격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배제하였다.

19) 평암산 화전가	신해(1971)	경북 영양	감천 1동 딸과 며느리 일동
20) 화전가	1950년 이후 <sup>28)</sup>	경북 봉화	김운덕
21) 화전답가	?	경북 의성	숙부인
22) 화전답가	기미(1919)	경북 예천	미상
23) 태평화전가	?	경북 문경	미상
24) 화수답가	임신(1932)	경북 영주	미상
25) 화수답가	?	경북 안동	김세양
28) 상춘곡	?	경북 상주	미상

위에 정리된 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화전가의 분포 지역은 안동6, 영양2, 봉화3, 예천2, 의성2, 영주, 군위 등의 안동문화권과, 상주2, 선산, 문경3 등의 상주문화권이 중심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9)</sup> 또한 대체로 많은 작품들이 20세기 이후 창작되었고 1970년대까지도 채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화전가는 이처럼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된 지역성과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이후에도 지속되는 역사성을 가지고 전승된다. 이러한 화전가의 창작과 향유는 화전놀이라는 전통 여성문화 또한 지역성과 역사성을 가지고 함께 이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화전놀이가 앞서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지역 축제의 일환으로 재현되고 있는 것에 비해, 그 재현의 형태가 단순하고 화전놀이의 주요 절차나 내용 등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데는 그 복원과 재현에 있어서 화전가 텍스트의 문화적 맥락이 참조되지 못한 때문이다. 앞서도 강조했지만 화전놀이가 여성들에게 안겨주는 가장 중요한 체험은 해방의 경험이다. 다음의 작품을 보자.

28) 내용에 보면 “골육상잔 하단말가 겨레에 아픈마음 그여울 오날까지 삼팔선이 막혀있고”라는 내용이 있어서 한국전쟁 이후 작임을 짐작할 수 있다.

29) 이상원, 앞의 논문 참조.

일년일차 이모임 마음인양 못들소냐 / 남여분명 달나셔도 심중소회 일반  
 이라 / 여보소 벗님네야 이너말삼 들어보소 / 적막심규 김흔속에 서러담은  
 하소연을 / 노래가사 지엇거든 이자리에 하소하세 / 좌중이 하는말씀 그대답  
 박수친다 / 어느부인 남먼저 나셔던되 / 훗튼머리 소복에는 얼굴도 서면하다  
 / 품속에 화전가사 양수로 바쳐들고 / 좌중을 다시향해 절한번 구진후에 /  
 낭당한 목소리로 긴가사 낭독하니 / 난중에 남편있고 독수공방 셔튼사정 /  
 마디마디 적은지라 좌석을 다 올린다 / 마음약한 부인네는 소리내어 느끼난  
 데 / 그소래 굿치나니 만장박수 일어난다……만장흥취 배송하야 수많은 부  
 인들이 저마다 일어나서 소견을 다말한다<sup>30)</sup>

1년에 한 차례 모임에서 여성들은 마음 속 깊은 설움과 사연을 담은 노래 가사를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풀어놓는다. 처음엔 쭈뼛쭈뼛하고 수줍기도 했을 터이나 누군가의 격려 속에 한 사람씩 나서서 낭당한 목소리로 자기 사연을 낭독한다. 서러운 시집살이나 과부된 설운 처지에 좌중의 일원들은 낭독하는 사연에 울거나 흐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박수도 치며 서로를 격려하고 북돋아주기도 한다. 이것이 화전놀이에서 화전가가 향유되는 진정한 장면이 아닐까? 화전놀이의 규모를 보면 대체로 1년에 한 차례 있는 모임인 만큼 상하촌의 여성들이 모두 통문을 돌려 모이게 되는 탓에 5, 60명에서 수백명을 헤아리게 된다.<sup>31)</sup> 많은 여성들의 참여와 그들의 다양한 사연이 공유되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여성들에게 해방감과 함께 정서적 연대의식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여기에 술과 음식, 춤과 노래가 동반하게 되니 비일상적 쾌락의 즐거움은 더욱 배가된다.<sup>32)</sup>

30) 18번 화전가, 권영철, 『규방가사 I』, 정신문화연구원, 1979, 376면.

31) ○ 상하촌 동유들아 고대의 풍속따라 화전놀음 하여보세 / 아무리 여자들사 한번  
 놀음 어려오리 / 이리저리 통기하니 손뽕치고 찬성하여 / 일시에 모인사람 오육십  
 명 되었구나 (19번 평암산 화전가, 381면)  
 ○ 슈백명 모인좌석 인인마다 가진포부 쇠록쇠록 기이하다 (20번 화전가, 390면)  
 ○ 후덕하신 존고분들 일언에 응낙하사 / 소임불러 분부하야 당일회비 지급  
 하니 / 백배치하 사례하여 손뽕치며 쉼여가서 / 송암정에 기좌하여 수  
 백여명 모였구나 (24번 화수답가, 409면) (권영철, 『규방가사 I』, 정신문화  
 연구원, 1979).

32) 일변으로 솟철따고 일변으로 썩을썩어 / 요기승에 함께들여 취포토록 먹어닐제 /

화전놀이는 이처럼 여성들에게 독자적 놀이모임의 참여를 통해 정서적 해방감과 일상 탈출의 경험을 제공하고, 또한 각자의 사연을 털어놓고 공유하는 생애 공유의 과정을 통해 정서적 치유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높은 수준의 문화적 체험인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허약하고 불건강한 자기서사를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공유하면서 좀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바뀌어나가는 일종의 문학치료 행위로도 볼 수 있다.<sup>33)</sup> 최혜진 또한 가사의 향유 목적 중의 하나로 치유와 소통을 거론한 바 있다.<sup>34)</sup> 주로 여성들의 규방가사 향유가 이에 해당하는데 마음의 상처나 정신적 불안감, 인생에 대한 회의 같은 것을 다름으로써 가사의 향유를 통한 소통이 곧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지역 축제나 문화 행사에서 활용되는 화전놀이 콘텐츠는 주로 유희적 소통의 방식으로 구성 활용되고 있다. 화전가를 보면 “서사→신변탄식→봄의 찬미→놀이 공론→택일→통문돌리기→시부모 승낙 얻기→준비→치장→승지찬미→화전급기→회식→유흥소영→과연감회→이별과 재회 기약→귀가→발문”<sup>35)</sup>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화전급기, 회식, 유흥소영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축제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화전가에 나타난 화전놀이의 해방과 연대를 통한 치유적 소통의 맥락을 콘텐츠화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여성들의 생애 경험이나 현실인식을 털어놓고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서 ‘詩會’나 ‘편지글 讀

쥬병도 임이할뿐 희륙이 낭자하다 / 연약한 여자자위 한잔술도 과허거든 / 세잔깅 각 하는 중에 엷든풍정 절노나니 / 손길잡고 이러서며 노리히고 춤얼추어 / 질탕풍 유 이러난이 요지연이 방불하다 / 유키흔 우리노름 귀공할씩 어딜넉고. (6번 병암 정화전가, 권영철, 『규방가사 I』, 정신문화연구원, 1979, 296면).

33) “문학치료란 ‘작품 서사’를 매개로 하여 심리적인 율힘이나 장애를 겪고 있는 이들의 ‘자기 서사’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허약한 자기서사’, ‘불건강한 자기서사’를 ‘힘이 있고 건강한 자기서사’로 바꾸는 과정이 곧 문학치료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김석희, 「문학치료학의 전개와 진로」, 『문학치료연구』1, 문학치료학회, 2004, 21면).

34) 최혜진, 「가사 문학의 향유 전통과 현대적 계승」, 『열상고전연구』32, 열상고전연구회, 2010.

35) 권영철, 『규방가사각론』, 형설출판사, 1986, 118면.

會’, ‘구술 생애 들려주기’ 같은 여성 중심의 놀이문화를 접합시켰을 때 비로소 화전놀이는 그 역사성을 획득하면서 더욱 지속 가능한 문화로 전승될 수 있을 것이다. 화전놀이 콘텐츠에서 화전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4. 화전가의 콘텐츠적 가능성

앞서 화전놀이의 관광콘텐츠화에서 화전가의 문화적 맥락과 기능을 참조하는 것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화전가는 현재 어떤 형태로 콘텐츠화되어 있으며 앞으로 활용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단은 자료의 집성, 주석과 현대역 같은 교육연구 콘텐츠로 구축하는 방향이다. 그 성과를 보면 자료의 집성은 상당한 반면 주석과 현대화는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다음으로 화전가를 콘텐츠로 활용하여 시, 소설, 대중가요 등 현대적 텍스트로 변용하는 경우이다. 여기서서는 이를 대중매체 콘텐츠로 범주화하였다. 이 부분은 ‘덴동어미’ 같은 특정 캐릭터를 중심으로 서사화하는 소설 작업처럼 상대적으로 여전히 활용의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다. 다만 이러한 콘텐츠의 활용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화전가 자료에 대한 충실하고 밀도있는 해석과 해제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적 또는 경제적 효용을 창출하기 위한 콘텐츠로 화전가를 활용하는 경우이다. 공연물이나 관광 전시 같이 산업적 측면이 고려된 콘텐츠들을 여기에 포함시켜 다룬다. 이 경우는 문자로 기록된 화전가 또는 그 내용을 시각적이고 정태적인 입체적 전시 자료로 보여주는 방법, 화전가의 절차나 내용을 스토리텔링화하여 하나의 민속콘텐츠로 개발하는 방법, 화전가의 서사성과 주제의식을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공연물로 전환하여 개발하는 방법 등 좀 더 다채롭게 그 방향을 생

각해 볼 수 있다.

#### 4.1 교육연구 콘텐츠로서의 화전가

규방가사 또는 화전가와 관련하여 일찍이 집성된 자료를 보면 대체로 자료에 대한 주석과 현대역 작업보다는 두루마리나 종이에 거칠게 필사된 자료 원본을 활자본으로 출간하여 연구자나 관심 있는 교육자들이 살펴볼 수 있게 하고 있다. 목록은 아래와 같다.<sup>36)</sup>

- 1971, 조애영, 『은촌내방가사집』, 금강출판사
- 1977, 조애영, 『한국 현대 내방가사집』, 금강출판사
- 1979, 권영철, 『규방가사 I』, 정신문화연구원
- 1984, 구미문화원, 『규방가사집』, 구미시
- 1985, 권영철, 『규방가사-신변탄식류』, 효성여대출판부
- 1988, 영천시 『규방가사집』
- 1991, 고단, 『소고당가사집』(전2권)
- 1995, 봉화문화원, 『우리 고장의 민요와 규방가사』
- 1996, 경주최씨가문 『내방교훈』
- 1998 모봉남, 『엄마의 가사문학』, 신지서원
- 1999 고단, 『소고당 규방가사속집 전』, 삼성인쇄사
- 2000 경상북도, “경북의 내방가사” CD
- 2001 울진문화원, 『울진민요와 규방가사』
- 2002 가사문학관 권영철 편, 『규방가사1』
- 2002 안동내방가사전승보존회, 『영남의 내방가사』1,2, 도서출판 한빛
- 2003 경북 경산 『건당 규방문학 ‘허다 겹은 다 지났스니’』, 도서출판 그루
- 2003 이정옥, 『영남내방가사』(전5권), 국학자료원
- 2003 이휘, 『견문취류』, 『소정가사』, 이회문화사

위 자료들은 개인 또는 지역에서 전승되는 두루마리 자료와 현대 여성

---

36) 최혜진의 앞의 논문을 참조하되 내용에 맞게 삭제나 추가 등을 통해 목록을 다시 정리하였다.

작가들이 창작한 가사 자료로서 개인이나 지역의 문화기관에서 채록하고 출간한 것이다. 자료에 따라 활자화된 자료만 있기도 하고, 원본의 영인이 함께 수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출판물 중심의 콘텐츠화와 달리 90년대 들어서는 가사의 향유방식을 전승 부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1997년 안동내방가사전승보존회가 출범하고 2013년까지 17회에 걸쳐 내방가사경창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를 지역축제에 포함된 관광콘텐츠로 볼 수도 있지만 가사의 향유 전통과 창작을 꾸준히 유도하고 새로운 작품의 발굴 창구 노릇을 한다는 점에서 이를 또 다른 형태의 자료 구축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원자료의 양적 집성과 소개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석이나 현대역은 충분치 않은 편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덴동어미화전가>의 주석과 해설을 시도한 임주탁과 박혜숙의 작업이 유의미하게 평가될 만하다.<sup>37)</sup> 박혜숙은 덴동어미의 일생담이 구연된 화전놀이의 현장을 여성들의 생명력이 발현되는 집단적 신명의 한 판으로 보고, 덴동어미를 타인의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는 달관적 여성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박혜숙의 관점은 <덴동어미화전가>의 미학적 성취를 이해하는 데도 기여하지만, 화전가의 전통과 관습을 이해하는 데에 여성의 생애와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대체로 자료들이 여러 곳에 散布되어 있는 만큼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 선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각편의 완성도를 평정하여 비교적 완성도 높은 작품에 대한 주석과 현대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4.2 대중매체 콘텐츠로서의 화전가

문학텍스트를 문화콘텐츠로 구축하는 데에 있어서 대중성을 염두에 둔

37) 임주탁, 「덴동어미, 불행하지만 누구보다 삶을 사랑한 억척 여인」, 서대석 편『우리 고전 캐릭터의 모든 것』4, 휴머니스트, 2008.

박혜숙, 「운명과 달관의 서사가사-덴동어미화전가-」,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3, 휴머니스트, 2006.

박혜숙, 『덴동어미화전가』, 돌베개, 2011.

다는 것은 텍스트 자체의 스토리텔링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점도 있지만, 텍스트가 다양하고 흥미로운 요소들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도 한 이유가 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일찍이 설화와 고전소설의 영역에서 매우 활발하게 전개된 바 있다.<sup>38)</sup>

가사 〈덴동어미화전가〉를 소설화한 『덴동어미전』<sup>39)</sup>을 보면 가사의 여성 인물 캐릭터를 소설 속에서 더욱 구체화하여 덴동어미뿐만 아니라

38) 오세정, 「수로부인의 원형성과 재조명된 여성상 -『삼국유사』〈수로부인〉과 극 〈꽃이다〉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회 제43차 학술대회 발표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4.

이창식, 「설문대할망설화의 신화적 상상력과 문화콘텐츠」, 『은지논총』30, 2012.

조해진, 「고전설화 〈만파식적〉의 문화콘텐츠적 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8-3호,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2.

김용범, 「문화콘텐츠 창작소재로서의 고전문학의 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언어문화』22, 한국언어문화학회, 2002.

김용범, 「문화콘텐츠 산업의 창작소재로서 고전소설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연구」, 『민족학연구』4, 한국민족학회, 2000.

김용범·전영선, 「고전소설의 문화적 전승과 매체」, 『민족학연구』5, 한국민족학회, 2001.

신선희, 「고전 서사문학과 게임 시나리오」, 『고소설연구』17, 한국고소설학회, 2004.

신원선, 「한국고전소설의 영상콘텐츠화 성공방안 연구 - 영화 〈전우치〉와 〈방자전〉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46, 2010.

신원선, 「〈춘향전〉의 문화콘텐츠화 연구-2000년 이후 영상화 양상을 중심으로」, 『석당논총』, 동아대 석당학술원, 2012.

이명현,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소재로서 고전서사의 가치」, 『우리문학연구』25, 우리문학회, 2008.

이지하, 「대하소설의 문화콘텐츠화에 대한 전망」, 『어문학』103, 한국어문학회, 2009.

정창권, 「대하소설 〈완월회맹연〉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어문논집』59, 민족어문학회, 2009.

한길연, 「고전소설 연구의 대중화 방안-디지털 매체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어문학』115, 한국어문학회, 2012.

함복희, 「야담의 문화콘텐츠화 방안 연구」, 『우리문학연구』22, 우리문학회, 2007.

함복희, 「〈청구야담〉의 스토리텔링 방안」, 『인문과학연구』29, 인문과학연구소, 2011.

허만옥, 「문화콘텐츠에서 서사매체의 변용과 발전 전략 연구」, 『우리문학연구』29, 우리문학회, 2010.

39) 박정애, 『덴동어미전』, 한겨레출판, 2012.

안동댁, 달실댁, 봄이 등의 인물과 역할을 확장함으로써 서사적 흥미를 배가시키고 있다. ‘공감과 연대의 서사’라는 원작 자체의 정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서사의 줄기를 촘촘이 엮어나감으로써 고전의 현대적 변용이 가지는 가능성의 긍정적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지양은 “고전텍스트를 문화콘텐츠적 관점에서 읽는다는 것은 고전텍스트 가운데서 각 분야의 지식 정보를 발굴해 내어 재구성, 재창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단순한 각색이나 장르 변화 정도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소통될 수 있도록 오늘날의 관점에서 재창조하는 것을 말한다.”<sup>40)</sup>라고 언급하면서 “문화콘텐츠는 의미 있는 사실 정보, 새로운 상상력과 감성 영역, 새로운 인간상, 현재적 문제의식이 투사된 주제의식을 불어넣어야만 비로소 문화콘텐츠로서의 완성도가 생겨나고 가치가 발생한다고 본다.”<sup>41)</sup>라고 고전의 문화콘텐츠화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지식이나 정보에 있어서는 엄격한 사실성을 근거로 하되 상상력, 감성, 문제의식에 있어서는 현재적 가치나 미래적 전망이 고려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화전가는 봄과 꽃이라고 하는 주요한 모티프를 내함하고 있고, 화합과 연대라는 정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가사의 소재나 정서는 현대 시나 대중가요로의 변용도 얼마든지 가능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화전가는 문학적 접근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스토리텔링화가 가능한 텍스트이다. 스토리텔링화에 있어서는 인물(캐릭터)이 중심이 될 수도 있고, 특정 지역과 결부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 4.3 산업정보 콘텐츠로서의 화전가

40) 이지양, 「문화콘텐츠의 시각으로 고전텍스트 읽기-〈춘향전〉의 ‘춘당대시과’ 대목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30, 한국고전문학회, 2006.

41) 이지양, 「문화콘텐츠의 시각으로 고전텍스트 읽기-〈춘향전〉의 ‘춘당대시과’ 대목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30, 한국고전문학회, 2006.

화전가를 보다 경제적 효용을 중시하여 콘텐츠화한다고 할 때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스토리를 갖춘 공연물이나 매체로 전환하거나, 지역문화의 전승 보존을 위해 자료를 전시하고 관람하는 문학관이나 박물관의 건립을 떠올릴 수 있다. 이러한 콘텐츠는 개발과 구축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개발 이후에는 경제적 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라는 점에서 산업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연이든 전시든 일종의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시각적 콘텐츠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서사성과 대중성이 관여될 수밖에 없다.

먼저 공연물로서의 화전가의 개발 가능성을 타진해 본다면 일차적으로 화전가 텍스트를 화전놀이와 결부시켜 재현함으로써 경북 북부 지방의 민속놀이로서 공연하는 방법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재현에 참조가 될 만한 자료로는 18세기 안동 권씨 문중에서 제작된 〈조화전가〉·〈반조화전가〉 같은 문답형의 작품이 있다. 18세기 자료인 〈조화전가(嘲花煎歌)〉와 〈반조화전가(反嘲花煎歌)〉를 보면,<sup>42)</sup> 안동권씨 문중의 부녀자들이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에 남자가 참여하여 여자들과 서로 가사를 주고받은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모임에서 가사를 주고받으며 의사소통을 하는 단계에서 규방가사가 널리 읽히기 시작하였고, 언어에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sup>43)</sup>

42) 이원주, 「“잡록”과 ‘반조화전가’에 대하여」, 『한국학논집』 7,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1980.

43) “턱손갓치 모은말을 서로만나 주갓던이 / 낫뜰본이 할슈업서 악수송봉 썬이로다 / 어와 동유들아 시집술이 말도말아 조심회도 말은어이 그리만노 / 집의서 업든즙도 즙은어의 그리만노 / 안즈도 즙이오고 서서도 즙이오고 원슈로다 즙줄이라.” <2-9. 형제소회가> (권영철 편, 『閨房歌辭』 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어와우리 중유들아 후싱의 남즈되여 / 요조숙여 다려다가 부모님께 효행호고 / 효즈효부 발원하고 부귀공명 가득하여 / 천하의 전신하리라 빅연영화 흐리로다 / 슬픈심회 갈밭업서 이노리를 지여년이 우습고도 고이하다 / 여러분 보시거든 능지소회 하여주소.” <2-9. 형제소회가> (권영철 편, 『閨房歌辭』 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여보시오 동유임닉 썩만먹고 농담말고 / 온갓경치 보난티로 글이나 지어보세 / 김낭즈야 일노너라 자늬먼저 흐귀깃세 / 저김낭즈 거동보소 벽계수에 부숙하던 / 제비처럼 옷독안저 주지를 폐체들고 / 제법흐귀 지어는다 흐춤을 싱각드니 / 송이

이를 공연의 형태로 재현한다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① (등장, 노래) 일군의 여성집단이 함께 등장하고 누군가 독창으로 여자 신세를 한탄하는 노래를 부른다.
- ② (연기) 한 여성이 봄철 화전놀이를 제안하고 많은 여성들의 동조 속에 화전놀이를 준비한다.
- ③ (춤) 분주한 여성들의 움직임이 다채롭게 재현한다.
- ④ (연기) 산과 꽃 등으로 꾸며진 소품을 배경으로 화전을 비롯한 술과 음식이 등장한다.
- ⑤ (춤) 여성들이 술과 음식을 즐기며 춤과 노래를 부르는 풍류 장면을 재현한다.
- ⑥ (노래) 이 때 일군의 남성집단이 등장하여 여성들을 향해 문제제기한다. 이 역시 독창으로 표현한다.
- ⑦ (노래) 남성들의 문제제기에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한다. 이 역시 독창으로 부른다.
- ⑧ (춤) 심각한 대립은 해소되고 남녀의 어울림 속에 놀이는 마무리된다.
- ⑨ (퇴장, 노래) 남자들이 먼저 퇴장하고 여성들이 이어 퇴장한다. 이 때는 전원이 제창하며 물러난다.

화전가는 화전놀이의 과정을 서술하는 서사적 구조에다가 앞뒤로 작가의 감회를 붙이고, 작품 중간중간 주정적 독백들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sup>44)</sup> 이러한 화전가를 민속놀이 형태로 공연할 때는 독창과 제창, 등장과 퇴장, 춤과 연기 등을 적절히 섞어서 배치하고 생활문화로서의

---

송이 피인꽃턱 송송이 난은나부 / 너도또흔 미물이나 춘흥을 못이겨서 / 춘풍도리 씨를타서 화전호로 네왔던야 / 문노라 저나부야 명연삼월 쏘만나자 / 권씨부인 여보시오 자제말고 지으시오 권씨부인 붓을들고 설녕설녕 쓰서닌다 / 높고높은 황혹손에 구경초로 올라오니 / 황학은 간곳업고 천손만흥 썬이로다 / 운담풍경은 오천흔디 들리난이 황여성이라 / 중천에 우난중 선경이 여기인듯 / 무진한 화류구경 다흐즈면 몇날인가.” <5-12. 화전가라> (권영철 편, 『閨房歌辭』 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44) 장정수, 「화전놀이의 축제적 성격과 여성들의 유대의식」, 『우리어문연구』39, 우리어문학회, 2011, 148면.

연행성이 잘 드러나도록 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③번 화전놀이 행차와 관련해서는 〈5. 화전가〉를 보면 참조할 만한 내용이 나오는데,<sup>45)</sup> 화전놀이 장소를 향해 출발할 때 한 일자로 늘어서서 악자지꼴 떠들며 화전놀이 장소로 향해가는 모습이 생동감 있게 나타나 있다. 또한 ⑤번 춤과 노래를 부르며 풍류를 즐기는 장면을 재현할 때는 〈19. 평암산화전가〉에 흥미로운 장면이 나온다.<sup>46)</sup> 이 작품은 1971년 경북 영양군 영양면 감천동의 딸들과 며느리들이 모여 화전놀이를 한 경험을 기록한 것으로 이도령 역과 춘향 역을 맡아 연극을 하기도 하며, 엉덩이로 글씨를 쓰기도 하고, 우스꽝스러운 곱사춤을 추기도 하며, 간첩놀이, 모의 결혼식에 답싸움까지 한다. 춘향과 이도령 역할 놀이, 결혼식, 간첩놀이 등 다채롭게 진행되는 놀이는 해방의 즐거움을 다양하게 표출하는 과정에서 채택된 것으로 민속놀이 재현 시에 참조가 될 만하다. 물론 좀 더 점잖고 교양있게 노는 모습으로 연출하는 것도 가능하다.<sup>47)</sup>

이러한 민속놀이 형태가 원래 모습에 가깝게 재현하는 것이라면 뮤지컬이나 연극, 마당극 같은 형식의 공연들은 무대를 중심으로 적절한 조명

45) “천명만마 줄진한대 한일자로 늘어서서 / 탐탐대로 느런길에 흑선흑후 뜨날적에 / 선도자는 누구시며 후행자는 뒤실는고 / 바른손 은봉채난 일월로 쟁광호고 / 청화삼 혀옥구난 바람결에 팔랑팔랑” (권영철 편, 『閨房歌辭』 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46) 애롭다 우리들은 여자몸 되었으니 / 숨겨둔 특기자랑 이때나 하여보세 / 처녀교장 위련이와 처녀교감 노미는 / 이도령과 춘향역을 두리병병 영숙이와 / 광대 같은 문규는 엉덩글씨 잘도 쓰고 / 별미없는 순련이와 심술장이 순옥이는 / 봉사놀음 잘도 하네 부덕 높은 교동댁과 / 백합 같은 점숙이는 꾀세춤을 잘도 추네 / 알밋스런 명수와 허덜풀이 복순이는 / 간첩놀음 잘도 하네 너도 나도 긴장되고 / 앓은뱅이 신부 춘희 절뚝 신랑 옥희는 / 신혼식을 잘도 하네 무지덕분 기숙이와 / 배꽃 같은 위자는 닥싸움을 잘도 하네 / 열적스런 상호와 애교 있는 정호는 / 어리흥네 잘도 낸다 특기 자랑 하여보니 / 웃음을 못 참겠다. (권영철 편, 『閨房歌辭』 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47) 풍정도 죠을시고 노름마다 화출이요 / 썩황한이 춤이로다 우리문중 성황이다 / 원만하신 노쌀내들 여중호걸 장할시고 / 등왕각서 도산별곡 가사노리 시조노리 / 사대부가 놀음일세 울울굴러 보내는가 / 차일밀의 점문숫튼 시대짜라 유행가락 천하절창 다모였네<sup>20)</sup> 화전가(권영철, 『규방가사 I』, 정신문화연구원, 1979), 390면.

과 미장센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하여 극을 꾸며낸다. 무대의 구성과 시각적 이미지와 관련해서는 화전가보다 화전놀이 장면을 목도하고 이를 시화한 다음의 작품이 참조할 만하다.

봄철도 어느덧 저물어서	春序忽以晚
오늘이 바로 삼월 삼진날	茲當三月三
푸릇푸릇 버들가지 휘휘 늘어지고	長楊碧嫋嫋
삐죽삐죽 풀 잎새들 부쩍 커났는데	細草青毵毵
어여쁜 복사꽃이랑 무르녹은 자두꽃	夭桃與穠李
흰 색 붉은 색 어우러져 만개(滿開)했네	紅白開相參
더구나 때마침 비 온 뒤끝이라	況值新雨餘
맑은 정경 어찌먼 그리도 선명한지	澄鮮晴景含
세상 사람 이 절기 중히 여기며	芳辰世所重
꽃잎 따라 화전 부쳐 봄놀이 즐기나니	時物佳可探
물가엔 미인들 가득 모여들고	水邊多麗人
길거리엔 말과 수레 교차하누나	陌上交驂驪
여인들 돋보이게 한껏 화장하고	新粧鬪粉墨
붉고 푸른 나들이옷 눈앞에 어른어른	袂服襍茜藍
해질녘 풍악소리 울리는 속에	日暮歌管動
거나하게 취한 이들 부축 받고 가는구나	扶路多昏酣

..... 48)

계곡(谿谷) 장유(張維)의 오언고시로서 봄철의 배경을 시각적 이미지를 동원하여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다. 버드나무, 복사꽃, 자두꽃이 희고 붉은 빛깔로 주변을 장식한 가운데 한껏 화장하고 붉고 푸른 나들이옷을 입은 여성들이 등장한다. 풍악소리 속에 거나하게 취해 화전놀이에서 귀가하는 모습이다. 무대 배경과 등장 인물의 의상, 무대 소품 등이 자연스레 그려질 수 있다.

화전가는 이처럼 민속놀이의 재현에서부터 무대 공연물에 이르기까지

48) ‘삼월 삼진날 병들어 누워 있으면서 붓 가는 대로 심회를 적어보다[踏靑日臥病 信筆書懷]’(『谿谷先生集』 25권 五言古詩).

그 시각적 요소들과 서사성에 따라 대중적이고 산업적인 콘텐츠로 재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텍스트이다.

또한 화전가는 각편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컨텍스트로서 화전놀이라는 전통문화와 음식, 의복 같은 생활요소 등이 텍스트의 주요 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박물관이나 문학관을 통해 전시 관람하는 방식으로 콘텐츠화가 가능하다. 화전가의 주고장인 경북 북부 지역에 가칭 화전가 문학관을 건립하여 몇 개의 주제로 테마관을 마련하고 화전가 관련 자료를 전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제1관 ‘화전가 자료관’에는 두루마기, 필사본, 관련 문헌 자료 등을 전시하고, 제2관 ‘화전놀이 재현관’에는 미니어처나 인형을 가지고 화전놀이의 절차를 재현한다. 제3관 ‘화전놀이 문화관’에는 화전놀이할 때 동원되는 음식, 술, 의복, 놀이도구 같은 것들을 전시하게 된다. 그리고 제4관 ‘화전가 스토리텔링관’에는 덴동어미화전가 같은 서사성 풍부한 화전가의 이야기를 동영상이나 시각적 콘텐츠로 구축하여 전시한다. 이렇게 구성 전시된 화전가 관련 자료들은 화전가 및 화전놀이 문화의 전통과 의미를 대중들이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 전달의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 5. 맺음말

이 글은 고전시가의 문화콘텐츠화 양상을 점검하고 그 향후 가능성을 전망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화전가의 문화콘텐츠적 가능성을 살펴보는 데에 논의를 집중하였다. 지나치게 상업화된 관광콘텐츠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올바른 교육적 콘텐츠를 구축하고 그 문화적 본질을 내 함한 대중매체·산업정보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면 화전가의 콘텐츠적 가능성은 매우 풍부함을 알게 되었다. 결국 콘텐츠로서의 질적 양적 바탕을 갖추어나가되 변화하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는 것은 고전의 울

바른 현대적 계승을 위해서도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인 과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전시가의 문화콘텐츠화 양상의 현실을 살펴보면 기초적인 자료의 집성 및 주석과 현대화 작업에서는 시조, 가사, 민요, 무가 등의 갈래가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고전시가가 현대시, 현대소설, 대중가요 등의 현대적 텍스트로 변용된 사례를 보면 주로 향가와 속요 갈래의 현대적 계승이 많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밖에 고전시가가 관광콘텐츠로 활용된 경우는 크게 축제와 전시로 나눌 수 있는데 주요 작가, 작품의 캐릭터, 또는 문화공간 등이 콘텐츠의 중심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밖에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통해 고전시가가 문화콘텐츠 원천으로서 적절성과 확장성을 지닌 텍스트임을 제시하였다.

화전놀이의 문화콘텐츠화 양상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지는 화전놀이의 축제 수용 사례를 통해 주로 유희적 소통으로 이것이 축소되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화전놀이 문화 본래의 지역성과 역사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화전가와 화전놀이의 결합을 통해 해방과 연대의 치유적 소통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 글의 중심에 해당하는 화전가의 콘텐츠적 가능성에서는 먼저 교육연구 콘텐츠 구축 작업에 좀더 많은 역량이 집중될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기초 작업의 튼튼한 토대 구축을 바탕으로 현대시나 소설 및 대중가요 등의 대중매체 콘텐츠와 관광이나 전시 등의 산업정보 콘텐츠로 확장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논의하였다.

고전시가의 다양한 갈래와 작품들은 문화콘텐츠로서 활용될 수 있는 풍부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경계하고 염려하듯이 상업화와 문화 왜곡의 위험성 또한 상존한다. 본고의 논의는 이러한 고전의 현대적 계승과 대중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적절히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도된 것이다. 남은 과제가 적지 않지만 깊이 있는 교육연구 텍스트의 구축 못지 않게 대중적 확산과 소통의 노력도 중요

함을 알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좀 더 많은 논의를 통해 발전적인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권영철, 『규방가사각론』, 형설출판사, 1986.
- \_\_\_\_\_, 『규방가사 I』, 정신문화연구원, 1979, 118면.
- 박정애, 『덴동어미전』, 한겨레출판, 2012.
- 박진태, 「13장 <정읍사>의 확산과 지역 축제로의 회귀」, 『한국문학의  
경계 넘어서기』, 태학사, 2012, 319~340.
- \_\_\_\_\_, 「14장 고전문학의 지역성과 <상춘곡>의 축제화」, 『한국문학  
의 경계 넘어서기』, 태학사, 2012, 341~356면.
- 박혜숙, 『덴동어미화전가』, 돌베개, 2011.
- \_\_\_\_\_, 「운명과 달관의 서사가사-덴동어미화전가-」,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3, 휴머니스트, 2006.
- 임주탁, 「덴동어미, 불행하지만 누구보다 삶을 사랑한 억척 여인」, 서대  
석 편, 『우리 고전 캐릭터의 모든 것』3, 휴머니스트, 2008.
- 정창권, 『문화콘텐츠 교육학』, 북코리아, 2009, 25면.
- 강명혜, 「고전시가와 스토리텔링」, 『온지논총』16, 온지학회, 2007,  
127~151면.
- 김석희, 「문학치료학의 전개와 진로」, 『문학치료연구』1, 문학치료학회,  
2004, 17~30면.
- 김용범, 「문화컨텐츠 산업의 창작소재로서 고전소설의 활용가능성에 대  
한 연구」, 『민족학연구』4, 한국민족학회, 2000, 1~37면.
- \_\_\_\_\_, 「문화컨텐츠 창작소재로서의 고전문학의 가치에 관한 연구」, 『  
한국언어문화』22, 한국언어문화학회, 2002, 47~72면.
- 김용범·전영선, 「고전소설의 문화적 전승과 매체」, 『민족학연구』5, 한국  
민족학회, 2001, 203~232면.
- 박혜숙, 「주해 <덴동어미화전가>」, 『국문학연구』24, 국문학회, 2011,  
325~370면.

- 신선희, 「고전 서사문학과 게임 시나리오」, 『고소설연구』17, 한국고소설학회, 2004, 75~106면.
- 신원선, 「한국고전소설의 영상콘텐츠화 성공방안 연구 - 영화 <전우치>와 <방자전>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46, 2010, 365~402면.
- \_\_\_\_\_, 「<춘향전>의 문화콘텐츠화 연구-2000년 이후 영상화 양상을 중심으로」, 『석당논총』52, 동아대 석당학술원, 2012, 1~34면.
- 안상경, 「청주아리랑의 역사성과 문화콘텐츠 활용 연구」, 『인문콘텐츠』11, 인문콘텐츠학회, 2008, 167~190면.
- 유정선, 「화전가에 나타난 여성의 놀이 공간과 놀이적 성격-‘음식’과 ‘술’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18,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57~83면.
- 이명현,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소재로서 고전서사의 가치」, 『우리문학연구』25, 우리문학회, 2008, 95~124면.
- 이상원, 「상주문화권 시가문학 연구」, 『어문론총』57, 한국문학언어학회, 2012, 257~281면.
- 이원주, 「“잡록”과 ‘반조화전가’에 대하여」, 『한국학논집』7,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1980, 37~51면.
- 이지양, 「문화콘텐츠의 시각으로 고전텍스트 읽기- <춘향전>의 ‘춘당대시과’ 대목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30, 한국고전문학회, 2006, 89~115면.
- 이지하, 「대하소설의 문화콘텐츠화에 대한 전망」, 『어문학』103, 한국어문학회, 2009, 197~220면.
- 이창식, 「설문대할망설화의 신화적 상상력과 문화콘텐츠」, 『온지논총』30, 2012, 7~45면.
- 임준성, 「<소쇄원 48영> 재연 요소 분석과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고시가연구』31, 한국고시가문학회, 2013, 247~281면.
- 장정수, 「화전놀이의 축제적 성격과 여성들의 유대의식」, 『우리어문연

- 구』39, 우리어문학회, 2011, 147~179면.
- 정인숙, 「〈사미인곡〉의 공연예술적 변용과 그 의미 ; 고전시가의 현대적 변용과 관련하여」, 『국어교육』120, 한국어교육학회, 2006, 531~563면.
- 정창권, 「대하소설 <완월회맹연>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어문논집』59, 민족어문학회, 2009, 85~110면.
- 조해진, 「고전설화 <만파식적>의 문화콘텐츠적 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8-3호,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2, 525~536면.
- 최한선, 「송강가사의 문화콘텐츠화 방향」, 『고시가연구』33, 한국고시가학회, 2014, 345~399면.
- 최혜진, 「가사 문학의 향유 전통과 현대적 계승」, 『열상고전연구』32, 열상고전연구회, 2010, 515~545면.
- 한길연, 「고전소설 연구의 대중화 방안-디지털 매체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어문학』115, 한국어문학회, 2012, 249~287면.
- 한양명, 「화전놀이의 축제성과 문화적 의미」, 『한국민속학』33, 한국민속학회, 2001, 335~358면.
- 함복희, 「야담의 문화콘텐츠화 방안 연구」, 『우리문학연구』22, 우리문학회, 2007, 149~181면.
- 함복희, 「〈청구야담〉의 스토리텔링 방안」, 『인문과학연구』29, 인문과학연구소, 2011, 129~158면.
- 허만옥, 「문화콘텐츠에서 서사매체의 변용과 발전 전략 연구」, 『우리문학연구』29, 우리문학회, 2010, 457~483면.

투고일 : 2014년 7월 15일, 심사 : 7월 17일~8월 8일, 게재확정 : 8월 8일

<Abstract>

## A Study on potential of Whajeonga as sources of Culture contents

Paik, Sun-chul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potential of Whajeonga as sources of culture contents. To this end, In this paper analyzed usage examples as culture contents in main works of classical poetry. And Whajeonnori includes regional features and historical features, However, Today, this had not just chance of modern succession in classical poetry. This study clarified appropriateness and scalability of Whajeonga as sources of culture contents.

Firstly, In Making cultural contents of classical poetry, this study suggested Modernization of Sijo, Gasa, Folk song, and Muga. Besides, Modern change in appearance of classical poetry showed positive examples through of the Koryo-gayo and Hyangga. Next, this study emphasized local examples of festival and exhibition as Tourism contents of classical poetry

Secondly, In Making cultural contents of Whajeonnori, this study presents possibility of therapeutic communication by healing and solidarity from combination with Whajeonga.

Lastly, In Making cultural contents of Whajeonga, this study emphasized building of education contents, transition to popular contents and transition to industrial contents.

As a whole, This paper institutes necessity of Making cultural contents

of classical poetry. Through potential of Whajeonga as sources of culture contents, we can identify potential of popular spreads and communication of classical literature

Key words : culture contents, whajeonori, whajeonga,  
Playful communication, Therapeutic communication

